

# ‘구조조정 완료’ 선언한 권오준, 미래 먹거리 확보 나선다

〈포스코 회장〉

재무구조 혁신·대대적 구조조정  
창립 50주년 신사업 강화 팔견어  
철강 등 기존사업 스마트한 변신  
에너지·소재 분야 허브로 육성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2일 시무식에서 창립 50주년 공식 엠블럼을 선포하고 엠블럼 깃발을 흔들고 있다. /포스코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포스코가 4년 여의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새로운 도약에 박차를 가한다.

2일 포스코에 따르면 권오준 회장이 취임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혹독한 구조조정 결과 회사 체질이 개선되고, 체력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창립 50주년인 올해부터는 기존 사업의 스마트한 변신과 함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성장 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포스코는 창사 이래 여러 가지 외부 변수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확대해 온 신규 성장 투자사업들이 조기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창사이래 최악의 경영위기를 겪어야만 했다.

한 때 7조원을 상회하던 연결 영업이익이 최근에는 2조원대 중반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현금시재도 최고 8조원을 상회하던 것이 5조원 대까지 줄었고 대외신용

도도 하락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권 회장은 재무구조 혁신을 위한 IP(Innovation POSCO) 1.0과 IP 2.0프로젝트를 잇달아 추진하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비핵심 철강사업은 매각했으며 유사한 사업부문은 합병시켜 효율성을 높였다. 저수익, 부실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부실확대를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그 결과 한 때 71개까지 늘어났던 포스코 국내 계열사는 38개로, 해외계열사는 181개에서 124개로 줄었다. 4년간 7조원 규모의 누적 재무개선 효과를 거뒀으며, 매년 4000억원 정도의 발생 가능한 손실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포스코의 연결 자금시재는 지난 3분기 말까지 8조5500억원수준으로 회복했고, 차입금은 5조원 이상 상환해 연결부채비

율은 2010년 이래 최저 수준인 67.6%로 한층 더 가벼워졌다.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최근 포스코의 장기 기업신용 등급 ‘Baa2’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Negative)’에서 ‘안정적(Stable)’으로, 다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 조정하고 향후 1~2년 간 지속적으로 포스코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포스코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전략으로 철강 등의 기존 사업을 스마트하게 변신시키는 것과 함께 포스코 고유의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등 투트랙으로 추진한다.

포스코는 철강산업은 물론 에너지, 건설, 화공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룹 본연의 사업에 ICT를 융합하는 스마트아이제이션(스마트화)을 추진해 자체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이를 통해 차별화된 융복합 사업을 새로 개발해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철강 생산현장에는 현재 추진중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스마트팩토리 전환을 이어간다. 핵심공정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친환경 고효율의 미래형 제철소를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인 월드프리미엄(WP)제품을 6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포스코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게 될 신성장 사업은 에너지 및 소재 분야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발전 사업의 내실을 다지면서 LNG 터미널 시설을 활용하는 LNG 미드스트림 사업을 적극 확대한다. 장기적으로 광양LNG 터미널을 동북아시아 에너지 허브로 육성할 방침이다.

신재생 발전 분야에도 투자를 확대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한 사업기회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그동안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해 오던 리튬사업은 남미, 호주 등에서 리튬 함유 염수 및 광석 확보를 위한 사업 개발에 참여해 안정적인 원료기반을 확보하고, 양산 체제를 구축해 주력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2일 포항 본사 대회의장에서 열린 2018년 시무식에서 권오준 회장은 “새로운 50년을 맞이해 임직원 모두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포스코 그룹이 가야 할 길을 깊이 명심하고, 멀리 보고 밝게 생각하는 시원명명(視遠惟明)의 자세로 올 한 해 더욱 분발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포스코 창립 50주년 공식 엠블럼을 공개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쌍용차 렉스턴 스포츠.

## 쌍용車, ‘렉스턴 스포츠’ 사전계약 시작

쌍용자동차는 픽업트럭인 ‘렉스턴 스포츠’(프로젝트명 Q200)의 외관 디자인을 공개하고 사전계약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렉스턴 스포츠는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G4 렉스턴과 플랫폼(차량의 기본 틀)을 공유한다. 차동기어장금장치(LD) 등을 갖춰 안정적인 오프로드(비포장도로) 주행 성능을 발휘하며

오픈형 데크가 제공하는 우수한 공간활용성은 렉스턴 스포츠만의 특징점으로 비교할 수 없는 감성적 만족감을 안겨 줄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한 뛰어난 멀티미디어 성능과 모바일 연결성을 제공한다.

렉스턴 스포츠의 판매 가격은 트림 별로 2350만~3090만원대로 책정됐다. 공식 출시일은 오는 9일이다. /양성운 기자

## “절차탁마의 자세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허창수 GS회장 신년사

기존사업 강화·미래동력 발굴 제시

허창수 GS 회장(사진)이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자세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자”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로 GS타워에서 열린 GS신년모임에서 “자신만의 차별화된 역량을 확보한 기업만이 생존을 넘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허 회장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핀테크 같은 ‘게임 체인저’의 등장으로 시장의 패러다임과 룰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은 배워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같은 실수는 줄이는 절차탁마의 자세로 역량을 쌓아야 진정한 ‘Value No.1 GS’로 거듭날 수 있다”고 GS 그룹 경영진에게 당부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와 포트폴리오 확충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제시했다.



허 회장은 “기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충해 사업구조를 더욱 고도화 시켜야 한다”며 “변화의 흐름을 잘 읽어내 신사업을 발굴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매진하자”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시도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고객에 접근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는 자산으로 삼아 더 나은 사업기회를 개발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경영환경 변화에 발맞춰 조

직분화도 유연하게 바꾸자고 요구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등 과거와 확연히 다른 경영환경에서는 끊임없이 학습하는 개인과 조직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다양한 현장에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서로 소통·공유해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자”고 말했다.

또한 “외부 관점을 개방적으로 수용해 우리의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변화를 이해하고 끊임없이 학습·진화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변화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에도 소홀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허 회장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새로운 먹거리 발굴 등을 통해 GS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상생 경영으로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

## KT, ‘갤럭시A8’ KT샵서 예약판매 시작 B쇼핑, ‘SK 스토아’로 채널 명 변경... 무술년 맞이 새출발

KT는 2일부터 4일까지 삼성전자의 ‘갤럭시A8’ 예약판매를 온라인 공식 채널인 KT샵을 통해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갤럭시A8의 정식 출시는 5일이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예약판매 없이 출시한다.

갤럭시A8(2018)은 갤럭시 모델 최초로 전면듀얼카메라를 적용했다. 또 인피니티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으며 빅스비 비전·홈·리마인더, IP68등급의 방수방진, 삼성페이를 탑재했다.

출고가는 59만9500원이며 색상은 블랙, 블루, 골드 3종으로 출시된다.

오는 31일까지 KT매장에서 갤럭시A8을 개통하는 고객에게는 ‘몰스킨 노트’를 2만개 한정으로 무료 제공한다.

다양한 추가할인도 있다. KT 고객이 31일까지 ‘프리미엄 슈퍼할부 현대카드’로 갤럭시A8을 할부 구매하면 이용 실적에 따라 2년간 최대 48만원의 통신비 할인에 4만원 캐시백을 더해 총 5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험생 연령대인 1998~2000년생이라면 ‘Y수능 데이터 무제한 페스티벌’을 통해 더 낮은 월정액으로 데이터 무제한을 이용할 수 있다.

가입 시 6개월 간 매월 최대 1만4390원의 추가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선택약정 할인과 프리미엄 가족결합 할인을 함께 적용 받는 고객은 최저 1만8500원에 데이터 무제한을 사용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T커머스 업체인 SK스토아는 2018년 무술년 황금 개띠의 해를 맞아 채널 명을 기존 B쇼핑에서 ‘SK stoa(스토아)’로 변경하고, 대규모 고객 프로모션을 연다고 2일 밝혔다.

회사 측은 SK 스토아로 채널명을 변경한 것은 ‘쇼핑에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SK 스토아는 브랜드 론칭을 기념해 이달 한 달간 새 출발 그랜드 오픈 기념 프로모션을 연다.

우선 100개의 TV 특가 상품을 편성하고, 매주 토요일 해당기간 구매 고객은 기존 20% 적립금 혜택 이벤트에 10%를 더해 총 30%의 적립금을 지급한다. 매주 일요일에는 SK 렌터카, SK텔레



모델이 새해 맞이 고객 프로모션을 알리고 있다. /SK 스토아

콤 휴대폰, SK 매직 정수기 등 SK 관계자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윤석암 SK스토아 대표는 “2018년에는 브랜드 인지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

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정보전달과 구매경험을 제공할 수는 커머스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